

# "갯바다 지키기 위해 하루 3시간 '보초'는 기본"

용운동 어촌계 이연현 잠녀회장

등록 : 2007년 02월 04일 (일) 16:16:07  
최종수정 : 2007년 02월 04일 (일) 16:16:0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이연현씨

<김대생 기자>

분명 행정구역상 수원리에 속해 있지만 자연부락인은 용운동은 별도의 '어촌계'를 가지고 있다.

수원리와 용운동 측의 설명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리해보면 '거리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별도 어촌계를 설립하게 됐다'고 한다.

집과 바다가 많이 가까운 탓에 이곳 갯바다는 잘 정비돼 있기로 정평이 나 있다. 용운동의 상시잠녀는 13명, 갯천초 작업에 참여하는 잠녀들을 포함하면 31명이 잠녀로 이름을 올렸다.

이곳 잠녀들의 평균 소득은 783만5000원 선. 공동어장은 해경을 하면 언제나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양식장은 1년 4~5번 공동작업을 한다.

이 곳 잠녀회장은 다른 곳과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이연현 잠녀회장(45)은 시집을 와 시어머니에게서 어촌계원 신분을 넘겨받았고, 동네 잠녀들로부터 물질을 배웠다.

이 잠녀회장은 "시집을 와서 보니 주변에는 다 물질을 하고 혼자 동네에 남아있는 일이 허다했다"며 "하겠다고 나섰더니 물질에 필요한 도구까지 만들어주면서 다들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늦게 시작해 지금은 중군 수준이라는 이 잠녀회장에게 바다는 아직도 잘 모르는 곳이다.

바다 밑에 길도 있고 밭도 있다고 하는데 몇번을 상군잠녀들의 뒤를 쫓아가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

1983년부터 꾸준한 투석과 정비 작업으로 '갯'만큼은 특색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지난해는 가격이 좋지 않아 한사람당 35만원 남짓 정도밖에 나누지 못했지만 재작년만 해도 50만~60만원선까지 받았다.

이를 위해 어촌계원들이 세명씩 조를 짜 1년 내내 툇돌을 관리하는 등 정성을 들였다. 발일을 하다가도 하루 평균 3시간은 바다를 지키다보니 여름에는 종종 관광객들과 다툼이 나기도 하는 등 힘든 일이 많다고 했다.

전복종패사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 최근 이곳에도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이 잠녀회장은 “수원리 경계 부근에 양식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 내려가는 곳이 툇바다와 연결된다고 해 고민”이라며 “갈수록 바다가 가물어가는데 훼손을 막을 방법이 없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